한성자동차, 황희찬 선수에 메르세데스-AMG 후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는 울버햄튼 원더러스 FC에서 활약하는 황희찬 선수에게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황희찬 선수(오른쪽)와 김상균 한성차 제너럴 매니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성자동차

광동제약, 임직원 가산 사진공모전 개최

광동제약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산 사진공모전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산사진공모전은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광동제약 가산사진공모전 수상작 중 여행 관련 사진들. /광동제약

포카리스웨트, 프로농구 올스타전 공식음료 참여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가 지난 1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공식음료로 참여했다. 지난 1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1_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조익성 동아오츠카 대표이사가 포카리스웨트 3점슛 콘테스트 우승자 이관희 선수에게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동아오츠카

인사

◆마스턴투자운용 ◇부사장 승진△이재길(대체 부문) △이상도(국내 부문) △홍성혁(국내부문) △이길의(경영부문) ◇전무 △이용규(F&F부문) △조미성(개발부문) △이태경(국내부문) ◇상무 △이수덕(개발부문) △임태경(개발부문)

◆하이투자증권 ◇실장 △MS운용실장 정진호 △클라이언트솔루션실장 이현민 ◇부서장 △주식운용부장 백선우 △FI Sales 부장 윤성배

◆무등일보 ◇ 승진 △디지털편집국 여수 지역 담당 국장 강명수 △논설실 국장대우 조덕진 △디지털편집국 국장대우 오세옥 △디지털편집국 부국장 류성훈 △디지털편집국 부국장대우 유지호 △디지털편집국 부장 임정옥 △디지털편집국 부장 김현수 △디지털편집국 순천 지역 담당 부장 김학선 △디지털편집국 부장대우 도철원 △마케팅사업본부 차장 이수빈 △경영관리본부 차장 김미리 △디지털편집국 광양지역 담당 차장 이승찬 △디지털편집국 장성 지역 담당 차장 대우 최용조 ◇ 보직 △경영관리미디어본부장 양기생 △디지털편집국 취재1본부장 박석호 △디지털편집국 취재2본부장 류성훈

부음

▲김영자씨 별세, 김무신씨 부인상, 김덕재(KBS 부사장)·광재·희재씨 모친상, 강혜인씨 시모상 = 17일 오전 1시, 안동 성소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9일, 안동추모공원, 054-850-8444

▲송동헌씨 별세, 송재오(천안시 대중교통과 팀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5시,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9일 오전7시. 042-220-9870

▲이대용씨 별세, 이권우·이원우(대원정보시스템 대표이사)·이승우(에이스테크원 상무이사)·이남훈·이재우·이선우·이상우씨 부친상, 이지혜(JTBC 사회부 기자)씨 조부상=17일 서울좋은병원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6시, 02-984-5000

'품질 제일주의' 정신… 내의 산업의 주역, 별이 되다

BYC 창업주 한영대 회장 별세

아염산소다 활용 표백기술 개발
76년 동안 속옷 외길 인생 걸어

국내 내의 산업의 거목이자 산증인인 한영대 BYC 창업주 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9시 별세했다. 향년 100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이다.

◆포목점 점원에서 백양 회장이 되기까지

한영대 회장은 1923년 전북 정읍에서 5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나 북면 소재 4년제 소학교와 정읍에 있는 6년제 정읍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포목점 점원을 시작으로 자전거포, 미싱조립 상점 등을 운영하며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든 한 회장은 광복 1주년이 되던 1946년 8월 15일, BYC의 전신인 '한흥메리야스'를 설립해 내의 산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 회장은 오직 내의 산업에 헌신해 국민 보건과 의생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와 신념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광복 직후, 국내 상황은 물자 부족 등으로 극심하게 피폐해져 있었다. 당시 남쪽 인구는 약 2000만명이었지만 국내 연간 내의 생산량은 약 52만매에 불과해 국민 37.6명당 내의 1매 꼴로 보급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한 회장은 더이상 국민들이 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서둘러 메리야스 내의 생산 착수에 나섰다.

한 회장은 양말 편직기의 몸통을 키우면 내의도 생산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5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국산 1호 메리야스 편직기'를 탄생시켰다. 기계에 맞는 바늘이 없어 직접 숫돌에 양말기 바늘을 갈아 끼우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의 생산을 위한 한 회장의 강인한 의지와 집념, 노력으로 편직기의 성능과 수를 증설했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나갔다.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6·25전쟁은 사업의 기반을 잘 다져 나가던 한 회장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러나 한 회장은 좌절하지 않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쟁이 끝난 후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운영자금으로 다량의 원사를 구입해 보관했으며 전북 경제·상권의 중심지이자 도청 소재지였던 전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이후 한 회장은 국내 최초로 아염산소다를 활용한 표백기술을 개발해 백물 내의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백양(白羊)' 상표를 출시했으며 대·중·소로 구별했던 속옷 사이즈를 4단계(85·90·95·100cm)로 나누는 등 제품 규격화와 표준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섰다.

◆'품질 제일주의' 정신으로 BYC를 세계적 브랜드로

BYC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회장이 가장 강조했던 원칙은 '속옷 외길', '품질 제일주의' 정신이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영 방침이 됐으며 76년 동안 한 눈 팔지 않고 달려온 한 회장은 BYC를 국민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만들며 내의 산업을 선도해왔다. 과거 미쓰비시 상사가 국내 시장에서 은밀히 샘플을 수거, 검토 후 BYC 제품의 품질을 높이 사 일본으로 수출을 제안했지만 한 회장이 '아직 수출할 만큼 우수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BYC는 지난 1975년 6월 상장했으며, 1990년 6월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한 최우수 상장기업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1985년, 한 회장은 주식회사 백양(現 BYC)의 간부 회의에서 기업의 명운을 가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수출 상품에 해외 유명 업체 브랜드를 부착하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백양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장래성을 주장하는 수출부,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영업부의 대립과 설전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사회 회부와 기립투표까지 진행된 이 안건에 대해 키를 쥔 한영대 회장은 고심 끝에 수출부 손을 들었다. 큰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독자 브랜드 개발을 통해 백양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날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BYC'의 탄생이었다.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한 BYC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상표를 넣은 로고와 '세계인은 BYC를 입는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성장해 나갔다. 전성기에는 세계 78개국에 8000만 달러 어치의 메리야스를 수출했으며 꾸준히 상승한 인기와 인지도에 한회장은 1996년 사명을 백양에서 주식회사 비와이씨로 변경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한화테크윈 NRF 현장.

한화테크윈 美·중동서 '영상 솔루션' 소개

보안전시회 '인터섹 2022' 참가

글로벌 영상솔루션 기업 한화테크윈이 해외 전시회에서 CCTV를 활용한 다양한 '영상 솔루션'을 선보인다.

한화테크윈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유통박람회 'NRF 2022'와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보안전시회 '인터섹 2022'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함이다.

NRF 2022에서는 유통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결제 솔루션 'QCO(Quick Check Out)'를 선보인다. 영상보안 분야에서 30여년 간 축적된 광학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사례다.

QCO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상품을 올려놓으면 기기가 상품의 바코드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형태의 무인계산기다. 다양한 유형의 매장에서 무인결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 소형 두 가지 모델을 선보였다.

한화테크윈은 많은 유통업체들이 효율적인 매장 운영 및 24시간 운영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인계산대 도입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솔루션을 개발했다.

중동 최대 보안전시회 인터섹 2022에서는 인공지능(AI) CCTV를 활용한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소개한다. 새롭게 선보인 '뉴 X코어', 'X플러스' 시리즈 CCTV는 카메라에 내장된 AI 분석 기능이 영상 속 사람, 차량, 번호판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류한다.

/양성운 기자 ysw@

CJ, 넥스트 K컬처 리더 쇼케이스 성료

총 26개 동아리별 작품 선봬

CJ나눔재단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오프라인 행사 현장 모습 /CJ

새로운 대중문화 발굴과 향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해온 CJ가 K컬처 열풍을 이어갈 넥스트 리더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CJ나눔재단은 지난 한해 지원해온 K컬처 넥스트 리더들이 주도하는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를 온·오프라인 융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는 참여 학생들이 준비한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창작 뮤지컬과 창작 레시피, 창작곡 등 총 26개 동아리별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 온오프라인 상영회를 통해 선보인다.

/신원 선기자 tree6834@

11번가-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프로젝트

총 19가구 지원대상 선정

11번가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 '11번가 행복도시락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총 19가구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11번가 행복도시락'은 주 5일분의 밑반찬을 담아 매주 수요일마다(오는 19일 시작) 각 가구에 개별 배송, 내년 2월까지 총 56주(약 13개월)간 전달될 예정이다. 건강한 도시락 제조 및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헬스케어 푸드테크기업 '잇마플'과 협업했다.

11번가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끼니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전달하는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서현 기자 seoh@